

## < 타자의 윤리학 : 200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타자들의 새로운 징후를 중심으로 >

최수완, 손정은, 윤현아, 홍연기

### I. 들어가며

2000년대에 들어 국적·인종·언어·문화·계급·젠더 등의 범주들은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탈경계적 상상력을 가속화시켰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된 탈영토화는 ‘국경’이라는 지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야 할 한계나 경계로 자리바꿈시켰고,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포획될 수 없는 ‘타자’들의 등장은 근대성과 합리주의 등에 기반을 둔 제도화된 서열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렇게 권력과 담론의 이분법적 논리를 해체하며 등장한 타자의 정치학은 주변화된 하위집단의 역사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저항과 투쟁을 통해 끊임없는 탈주를 추구한다.<sup>1)</sup> 하지만 타자를 복권(復權)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자칫 또 다른 주체를 성립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은 오히려 ‘타자’로 정립조차 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이중적인 소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진행된 자본주의의 팽창과 세계화 속에서 이것의 외지에 배치된 이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소설속의 예외적인 존재들은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소외와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가리키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sup>2)</sup>란 말은 2000년대 소설의 핵심적인 모티프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타자들의 새로운 징후는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연대나 윤리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타자 또한 환대의 주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대 소설에서 나타나는 탈국경적 상상력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조선족이 겪는 이중적 소외를 조명하고 있으며, 계급의식에 대한 인간적인 저항은 호모 사케르로 전략하지 않으려는 타자의 실천성을 보여준다. 또한 수행적으로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은 젠더의 경계 자체가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젠더 교란을 통해 무한한 가지 수로 발생할 수 있는 타자의 내면을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타자의 이야기가 끊임없는 억압과 침묵을 강요당해온 것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결여를 응시하는 타자의 성찰적 면모를 나타내는 서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들은 단순히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윤리학을 되짚어 보게 하는 자기-충실성<sup>3)</sup>과 내부로부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sup>4)</sup>와 김경옥의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sup>5)</sup>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소설에서 등장하고

1) 김상구 외(2004),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출판부, pp.109~111

2) 호모 사케르는 주권자의 추방령에 포섭된 생명의 근원적 형상으로 정치적 차원의 근원적 배제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를 뜻한다. 즉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으로서 주권적 추방령 안에 포함된 생명이며 “주권적 결정의 참조 대상으로서 **포함인 배제 속에서 작동하는**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법에 의해 추방됨으로써 법적 지위를 상실했지만, 바로 법에 의해 추방당했기에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역량이 완전히 박탈된 형태로만 정치적 관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역설적인 존재들이며, 또한 주권이 산출하는 예외상태로 생존 외의 어떤 가능성도 타진하기 힘든 상태로 볼 수 있다.

조르지오 아감벤(2008),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참조

3) 슬라보예 지젝(2009),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역, 그린비 참조

4) 김애란(2009),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문학과 사회》 봄호, 문학과 지성사

있는 타자들의 새로운 징후를 통해 ‘타자의 윤리학’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II.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노래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 받은 한 무능력한 남자가 조선족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나 그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에게 받았던 짧은 위안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날리고, PC 방에서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으며,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는 인물이다. 사람들은 그가 불성실하고 유아적이라고 비난하고, 가족들은 그를 경멸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한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런 멸시와 차가운 눈초리를 뒤로 하고 가출하다시피 상경했지만, “도시의 속도에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며 택시 운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이 도시는 ‘제 자리’가 아니지만, 막상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또한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그를 “홀딱 빠지게 한 ‘명화’라는 여자”는 조선족<sup>6)</sup>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찻집방 청소, 발마사지, 가정부, 모텔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보다 열 살이나 어린 여자였다. 함께 일하던 그녀의 여동생은 한쪽 눈을 실명한 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는 불법체류자였기에 낮은 임금에도 묵묵히 일하며 가족들을 위해 돈을 송금했다. 서구중심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와 혈통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 속에서, 이러한 조선족이라는 명화의 위치는 이중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국경을 넘어왔고, 우리 말을 이해 못하고, 우리와 동일한 말씨를 쓰지 않기에 명백한 이방인들이고,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은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중국 내에서조차 완전한 흡수도, 그리고 배척도 아닌 대우를 받아왔다. 중국은 이른바 자치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선족에게 소극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갈구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뒤편으로써 조선족이 중국의 중앙정부나 공산당에서 요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해 왔기 때문이다. 즉 조선족은 조선족 자치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지금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따라서 명화에게도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는 ‘제 자리’가 아니지만, 그녀 역시도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완전한 근거지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혈육보다 다정한 이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마땅히 ‘환대’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그가 아니라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화가 그에게 위로가 건네고 의지가 되는

5) 김경옥(2009),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창작과 비평》, 봄호, 창비

6) 중국 조선족의 뿌리는 한국이지만, 그들의 국적은 중국이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자신의 국적을 물어본다면 그들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이라고 대답한다. 즉 그들은 한국말과 한국식 문화를 유지해 왔지만 그들이 받은 교육의 바탕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것이 깔려 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과 정체성이 한국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상화 외(2007), 『중국 조선족의 중간 집단적 성격과 한중 관계』, 백산자료원 참조

7) 조선족에게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밟아가는 코스에 편승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동북3성(헤이룽 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벗어날 기회 또한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한참 후에야 제공받게 되었다. 즉, 동북3성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조선족의 바탕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중국의 문화·교육·경제·정치계 등에서 조선족의 비중과 영향력은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매년 해외로 결혼하는 여성들이나 이주민 등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다.

정신철(2004),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모시는 사람들 참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검사로 재직 중인 조카는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숨기면서까지 그를 피하고, 형제들 또한 대놓고 그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그들은 “피가 섞였어도 서로가 도움도 피해도 주지 않을” 남보다 못한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명화는 “열에 달뜬 청춘처럼 새삼”스럽지만 절박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그의 조카는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의 손이 닿기 싫어 몸을 움츠리고 그에게 거리를 두었지만, 이와 달리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을 존중하는 명화의 모습은 서로 교차되며 그녀가 그를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정성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 못할 게 없다는, 소통에 관한 한 순진할 정도의 믿음이 있던 북쪽 여자. 일도 참 잘했지만 공부를 했다면 더 좋았을 젊은 아내. 처음, 손바닥에 땀을 닦고 악수를 건네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족의 인사법을 존중하듯, 웃으며 따라 한 여자. 웃을 땀 하얗게 웃고 죽을 땀 까맣게 죽어간 여자. ‘짜이날’을 받음하자, 그 여자가 떠올랐다. 용대는 아내가 뭔가 설명하고 전달하려 애쓰는 모습이 좋았다. 그 대상이 자기일 경우에는 더더욱. 언제나 말이 고파 크게 벌어진 눈. 지구축처럼 - 사람을 향해 15도쯤 기울어져 있던 마음, 그 경사에 스스로 미끄러지면서도, 아프면 그저 ‘아아’하고 말던 성격. 그녀는 용대를 진지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sup>8)</sup>

용대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하는 대신 조용히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용대에게 베푼 환대가 ‘조건부 환대’<sup>9)</sup>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그녀는 불법체류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의 청혼을 수락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용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빈말로 중국어를 배워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그와 더욱 소통하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직접 녹음한 테이프를 건넨다. 게다가 그녀는 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자신을 붙잡고 발악하는 그에게 “순한 아이처럼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작 위료가 필요한 대상은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명화는 절규하는 그를 묵묵히 받아준다.

레비나스는 “죽음이란 알 수 없는 것, 나에게서 유래되지 않는 것, 하나의 신비”<sup>10)</sup>로 묘사함으로써 이 때 존재는 완전한 수동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갖는 관계는 일종의 배제적 경험이며 스스로가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명화는 자신의 죽음 이후, 즉 절대적인 타자성을 획득한 이후에 녹음해 두었던 중국어 테이프를 통해 그에게 ‘무조건적 환대’를 보여준다. 그녀의 죽음 뒤, 우연히 발견된 테이프는 아무렇게나 살던 그에게 “그 여자 나라말을 외면서, 자신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성조가 4개나 있어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노래도 주지 못했던 위안을 그에게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 물론 녹음된 테이프 속의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답례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를 향해 자신을 기울여 그의 죽어있던 시간을 일깨운다. 즉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암 투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까지 철저히 소

8) 김애란(2009),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2009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pp100~101

9) 김애령(2008),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39집 참조

10) 이 경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험이 아님을 레비나스는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험이란 인식, 빛, 주도권을 뜻하기 때문이다.

강영안(2005),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p.107

의 받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그녀는 환대에 있어서 주체적인 입장으로 현현하게 된 것이다.

테리다는 환대의 윤리에 대해 빗살처럼, 사방으로 방사되는 면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sup>11)</sup> 즉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명화는 가장 극명한 단절상태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죽음의 저편에서 노래에 가까운 말을 통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러한 환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불 꺼진 택시 안, 시계태엽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이프의 운동.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용대는 더듬더듬 어색해하게 중국말을 따라 한다.

“워 더 쩌웨이 짜이날?”

-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테이프는 철커덕 소리를 내며 저절로 뒷면으로 넘어간다. 짧은 사이, 다시 영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리찌리 위안 마(离这里远吗)?”

- 여기서 멍니까?

용대는 조그맣게 “리 쩌리 위안 마?”라고 중얼거린 뒤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sup>12)</sup>

이방인들은 꺾끄럽고 어색한 대상에서 주체가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타자성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1970년대 차가운 도시 속에서 빛을 잃고 시들어가는 이미지로 표현된 타자들의 모습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도시를 동경한 젊은 여성들은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그려졌으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즉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한 주체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은 환대를 받는 대상이 아닌 환대를 베푸는 대상으로 귀환하고 있다. 명화는 병원비가 없어 쪽방에서 “깃털처럼 가벼워 무게가 안 느껴질 만큼 조그맣게 줄어들어” 죽어가야 했던 존재였다. 즉 그녀는 터럭만큼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녀는 용대에게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찾도록 만든다. 그녀의 ‘말’이 아닌 ‘노래’에 가까운 낮은 음성은 이방인들의 새로운 위치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서로 묻는 그녀와 그의 음성은 그곳이 먼 곳인지를 가늠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위안을 추구하고 있다.

삶의 한 복판에서도 침묵당해야 했던 타자들의 목소리는 죽음의 저편을 가로질러 ‘보이지 않는 타자’의 모습으로 더욱 강력한 울림을 전해오게 된 것이다. 이제 그들의 노래는 자신들의 구원이나 그들이 처한 위치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주체의 결여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무조건적인 환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 III. 행동하는 타자의 실재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늙은 남자가 곧 철거될 쪽방촌에서 홀로 어린 손녀를 키우고 있

11) 자크 테리다(2004),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역, 동문선 참조

12) 김애란(2009), 앞의 책, p126

다. 아들은 공사현장을 전전하느라 간간이 전화연락만 오고, 며느리는 손녀를 낳다가 죽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가족이나 다름없는 어린 손녀는 ‘펠리스’란 단어가 들어간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남자는 범인들을 어렵게 찾아내지만, 그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때 남자는 스스로 그들을 처벌하고자 결심한다. 과연 이러한 결심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혹은 이들의 죄를 묵과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더욱 옳은 것일까?

김경옥의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소설은 인간적일 수 없는 신의 정의(正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선택과 달리, 그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이다. 당뇨병의 악화로 인해 남자는 시야를 거의 잃게 되었고, 그가 살고 있는 쪽방촌은 엇그제 가스가 끊기고 조만간 전기와 물이 끊길 예정이다. 구청에서 통보한 퇴거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몸이 아파 출근을 제대로 못하자 일용직으로 일하던 택배 회사에서 해고된다. 즉 그는 슬럼 거주민<sup>13)</sup>인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의 노동 계급이 “착취”라는 경제적인 개념을 통해 정의되었다면 슬럼 거주민들은 사회·정치적인 특성에 따라 정의된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시민권의 법적인 공간 및 현실적인 권리와 관련해 피난민들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생성된, 지구적 자본주의의 “살아있는 망자”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권력이란 ‘집중’을 하고 피난민들은 ‘야영’을 하지만, 슬럼 거주민들의 경우 권력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밀어 넣는다. 즉 푸코적인 규율의 미시-실천들과 반대로, 권력은 슬럼가 거주민에 대해서 전적인 통제와 규율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슬럼이라는 변두리 중간지대에 거주하게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sup>14)</sup>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관리하는 치안이란 일종의 경제의 논리<sup>15)</sup>와 맞물려 생각할 수 있으며, 권력의 이러한 선택은 그들에 대한 (비)통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젝은 ‘시차적 시각’을 통한 실천적 의지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해방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시차적 시각이란 동일한 공간 속에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극들이 하나의 공간, 같은 윤곽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차적 관점은 선과 악 사이의 시차적 공간에서 도출된다. 둘 사이의 간극, 그 긴장과 가능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불가능한 공간 속에 머물며 ‘거절’하는 것<sup>16)</sup>, 그것이 시차적 관점에 의해 드러나

13)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노동 계급과 달리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고, 체계 속의 주체가 아니며, 토대를 구축하는 중심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의지에 배치된 이들로서 지젝은 이들을 세계를 새롭게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2009), 『시차적 관점』, p.533

14) 슬라보예 지젝 (2009), 앞의 책, pp.532~533

15) 치안이란 지배의 대상인 인민을 인간 주체로 보지 않고 사물화된 존재로 간주한다. 그것은 사물로 상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와 ‘몫’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그와 같은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된 낱것의 생명체로 환원하여 훈육하고 보호하는 통치 질서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제거하여 ‘사물화’ 한다는 점에서 치안의 논리는 곧 경제의 논리이다.

슬라보예 지젝(2009),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역, 그린비

16) 부정 (die Verneinung)은 알지 못하는 주체, 휘둘리는 주체, 증상으로서의 주체, 아직 무의식의 진실을 대면하지 못한 주체 -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 에 연관되는 반면 거절은 분석의 종결지점에 탄생하는 주체의 모습에 관련된다. 운명을 짊어지고 발언하는 주체가 바로 거절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거절의 주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시차적 시각이다. (중략) 초자아와 그 외설적 정언명령이 하나의 동일한 동전이 가진 양면이듯이 하나의 대상의 대립적 특성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눈앞의 대상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2009), 『시차적 관점』, p.827

는 실천적 해방의 가능성인 것이다. 따라서 시차적 관점 안에서 선과 악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고, 단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통한 의지의 표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여기서의 거절이 ‘부정’(不定)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의지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젝은 슬림 거주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시차적 시각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혁명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전복, 파열, 파괴, 붕괴, 혁명이다.<sup>17)</sup> 또한 지젝은 그것이 결코 덜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폭력은 혁명을 위한 필연이다. 그것이 체계이전, 시각이전, 의제이전 기존의 것을 전복시키는 거절은 부드럽고 온화할 수 없는 것이다.<sup>18)</sup> 그리고 여기서 지젝이 제시하는 더욱 구체적인 답은 “개인”의 거절이다. 그것은 탈근대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거대담론을 전제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거절들은 필연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벌이 없으면 죄도 없다. 교장실을 나서는 사내의 마음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들끓었다. 소득 없이 경찰지구대를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만 열네 살이 안 된 아이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니,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나라가 아니다. 사내의 심장은 용서가 아니라 폭주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별떡했다. (중략) 행운에 목매는 자들은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지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의지를 맹신하는 자의 몫이다. 벌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의지를 버리며 지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자는 전쟁을 벌이려는 자다. 벌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사내는 자신의 심장에서 소용돌이치는 신의 분노를 느꼈다. 이제 사내는 자신이 더 큰 의지의 도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sup>20)</sup>

이러한 이유로 선과 악은 모호하게 봉합되거나, 혹은 벌이 생략된 채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 때문에 남자는 비장한 각오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신만의 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그들의 비싼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자신의 성공적인 복수가 회자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굳건하고 남자의 행동으로 인한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남자의 행동은 ‘무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 여기서 남자의 행위에 대한 의미는 표면적인 변화의 정도에서가 아니라 그의 내부로부터 발생한 혁명적 에너지와 개인적인 선택에서 찾아

17) 지젝은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왜곡하며 밀려드는 살인적인 세계화 속에, 동구권의 몰락 이후 많은 학자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속에, 시차적 관점으로 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의 외설적인 측면이 법에 고유한 것이라면 자본주의의 외지에 배치된 이들, 즉 법 안에 있으나 동시에 그 밖에 있는 이들을 통해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운명으로 부과하는 그 체계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 (2009), 앞의 책, p.830

18) 진리에의 충실성이 치안의 존재 질서를 외부로부터 파열시키는 사건의 원인이다. 치안의 관점에서 그런 정치적 사건은 ‘폭력’이다. 이런 행위는 치안의 법과 적대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일 뿐 아니라 어떤 대타자 형상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진리(윤리적 법)를 입증하는 체현적 행위라는 점에서도 폭력적이다. 이와 같은 주체의 정치, 진리의 정치, 체현적 폭력의 정치를 포기하고 그저 자기 몫의 증대를 주장하고 다양한 정체성들의 평화로운 공존만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대항-정치는 정치 본연의 적대성을 은폐하는 탈-정치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2009),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박정수 역, 그린비, p.696

19) 슬라보예 지젝 (2009), 앞의 책, p.829

20) 김경욱(2009),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2009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 p53~54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슬럼 거주민인 그가 호모 사케르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 실천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진리에 대한 자기-충실성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그는 무제한적인 폭력의 테두리 안에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스스로의 실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는 망자와 다름없다는 자신의 위치가 변함없을지언정 “살아있는 망자”에서 “살아가는 망자”로 탈바꿈 되는 것이다.

지젝은 현 시점에서 볼 때 권력이나 타자들의 저항 모두 실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았다. 권력의 탄압과 이에 대한 남자의 결단이 모두 “별 일”일 수 없었듯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는 소수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일종의 가치상품으로 환원되어 적당한 선에서 그것의 실재성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신에게 기도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타진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굳은 실천적 의지를 통해 자신의 실재성을 확인받는 과정은 권력의 면모에 균열을 가하는 해방적 에너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며

타자의 윤리에 대한 작품과 담론의 증가는 무한한 가지 수의 도래하는 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개별적 차이를 삭제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나 관용으로 이들을 대하는 것 역시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타자를 대하는 데 있어 환대나 책임의식, 윤리 등은 언제나 주인인 주체의 몫이었고 타자는 환대를 필요로 하는 손님이나 희생자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과 ‘연대’ 하고 있다는 환상<sup>21)</sup> 또한 자리하게 되었다. 즉 타자의 강화된 모습조차도 주체의 환상 속에서 성립되거나 혹은 다른 주체로 귀속되고 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이 전도된 타자의 모습은 이미 더 이상 타자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자가 환대하는 입장으로 등장하는 타자의 윤리학은 주체가 자신의 결여를 인정하고 타자로부터 위안 받을 수 있음을 수긍함으로써 삭제되었던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자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의해, 주변과 함께 제 의미를 드러내며 “분리 불가능한 혼종성을 밖으로 발화하는 실천적인 태도”를 통해 문학 본연의 모습을 현현하고 있다. 때문에 타자가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결여를 성찰함으로써 자기-충실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타자의 시도는 세계의 새로운 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 복도훈, 「연대의 환상, 적대의 현실」, 《문학동네》, 2006년 겨울호, p.490